



'87년 메이저사업계획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 BP

피터 윌터즈 BP 회장은 『튼튼한 財力의 뒷받침 덕택으로 장래 전략의 대폭적인 수정 없이도 지난 해의 低油價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이 전략은 우리의 강점과 성공이 입증된 분야에서 선별적으로 계속 추진되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올해의 상류부문, 즉 탐사개발활동은 86년보다 축소될 것이나, 특히 北海에서의 신규개발에 중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北海의 英國측 조광구역의 Cleton과 Ravenspurn South를 포함하는 빌리지가스田은 88년 10월에 생산을 시작하여 최고 5억입방피트의 가스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시추선 건조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SWOPS라 불리는 이동식浮游 시추선이 건조중에 있어 오는 88년에 사이러스油田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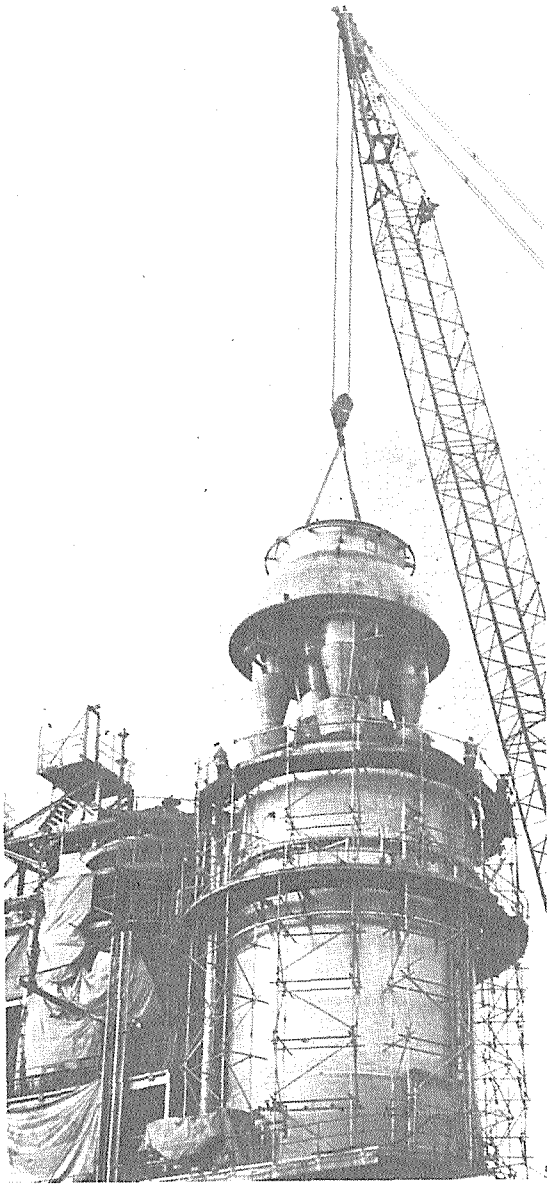
현재 검토중에 있는 개발계획으로는 3억6천만배럴의 매장량으로 추산되는 밀러油田과 마노크·브루스가스 콘덴세이트田 등이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올라油田이 현재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油田은 北海의 개발에서 최초로 가격수준에 비추어 볼 때 채산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인근에서 지다油田과 가스田이 잇따라 발견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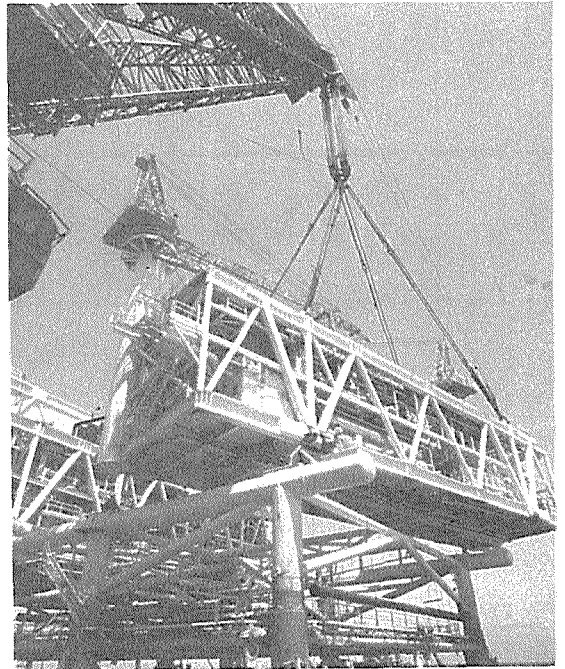
다. 매장량이 2억배럴로 추산되어 상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91년부터는 가스의 생산판매도 가능해져, 하루 최고 3천8백만입방피트의 가스와 6만배럴의 석유생산이 기대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가스를 수송하기 위한 2개의 신규 파이프라인의 설계가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Q/8a 가스田이 생산중에 있으나, L/1 및 P/2田의 개발계획은 연기되었다. 英國육상유전에서는 위치팜油田이 올해 중반에 6천B/D에서 6만B/D로 생산량증대가 예상된다. 그밖에 인도네시아, 이집트, 카메룬, 에콰도르, 프랑스 등에서 탐사개발활동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하류부문의 투자활동은 韓國 瑞山에 6만B/D 규모의 정유공장 건설에 중점이 두어질 것이다. 極東石油과 합작으로 건설중인 이 정유공장은 오는 8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억6천만파운드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이 정유공장이 완공되면 太平洋 지역에서 가장 고도화된 시설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코틀랜드의 그랜지마우스정유공장도 신규증설 및 시설개체가 88년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다. 여기에는 가스처리장치, 수소회수·정화장치, 메틸펜탄, 에틸렌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BP케미컬社は 英國 혈에 1억2천만파운드를 투자하여 오는 88년에 완공을 목표로 초산 및 무수초산시설을 건설중에 있다.



시설개체작업중인 BP의 그랜지마우스 정유공장



셰브론의 포인트 아르겔로田 개발에 투입될 건조중인 시추선

상유전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濠洲에서 노스웨스트 셸프 가스프로젝트와 3억배럴의 매장량으로 알려지고 있는 英國의 16/26광구의 탐사도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새로 착수하는 신규사업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 셰브론은 유가약세에 비추어 지금이 각국정부와 재협상을 보아야할 시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해상유전의 개발로는 美國 캘리포니아 해상 포인트아르겔로田에서 원유 2십만B/D 및 하루 1억2천만입방피트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건설중에 있다. 올해 중반쯤에는 이곳으로부터 생산이 기대된다.

■ 셰브론

87년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는 85년보다는 낮은 그러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주사업지역으로는 西아프리카, 특히 나이지리아, 앙골라, 자이레등에서 육

■ 모빌

알렌 E. 머레이사장은 올해 同그룹의 사업활동이 침체를 보일 것이지만, 여전히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해외유전개발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최근에 말한 바 있다. 그는 채산성이 악화된 사업에 대하여는 정

부와 조건의 재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모빌은 가까운 장래에 신규 정유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것이나, 다만 세계적으로 옥탄시설 및 고도화시설 증설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海外收入비중이 늘어가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5년 이내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으로 제품공급에서 輕質油의 비중을 보다 높여갈 것이다. 中共에 대한 윤활유의 판매신장이 기대되며, 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韓國과 브라질 시장도 주목을 하고 있다.

이미 세계에 걸쳐 있는 정유공장의 25%를 폐쇄시켰기 때문에 남아있는 정유공장들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류부문활동으로 모빌은 올해 英國에서 적극적인 탐사·생산계획을 예상하고 있다. 北海의 베릴해역 부근 수개의 군소油田의 개발가능성이 그중 하나인데, 베릴플랫포움은 2017년 이후에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멕시코灣에서 모빌은 그린캐년블럭18의 조광권자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올봄부터 하루 원유 2만배럴과 2천만입방피트의 가스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에서는 콜드레이크지역에 1천 2백만달러의 重油스팀플루드프로젝트가 여름부터 착수될 예정으로 있다.

■ 옥시덴탈

87년의 투자지출은 전년도의 8억 4천만달러에서 크게 감소한 5억 6천 5백만달러로 계획되어 있다. 옥시덴탈社は 85년도에 해외 및 국내의 석유·가스사업에서 3억 2천 820만달러의 수익을 거두었으나, 86년의 3/4분기에는 28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여기에는 85년 2억 4천 3백만달러의 수익을 거둔 컬럼비아에서의 이권매각이 포함되어 있으며, 86년에는 低油價로 인하여 판매수입이 격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同社는 10억배럴 규모의 카노리온油田에 대한 8억달러의 과세를 놓고 정부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또한 리비아에서의 석유·가스사업을 중단하고 조광권을 비롯한 이권의 매각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美國에서는 휴고톤에 캔사스가스田의 시추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 놓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작업에 착수하

여 87년말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다. 생산시작 3~4년쯤 후에 최고 하루 2억입방피트의 가스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英國에서는 스키퍼해상유전이 최근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 유전의 생산량은 6천B/D에서 2만4천B/D로 증가가 예상된다.

옥시덴탈社の 석유 및 가스의 개발비용 지출은 86년 9월까지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를 보였다. 전세계에 걸쳐 85년에는 1억 5천 780만달러를 지출하였으나, 86년에는 1억 4천만달러를 지출하였다. 美國內에서만의 투자는 85년 1억 6백만달러에서 86년에는 6천 5백만달러로 격감하였다.

■ 셸

셸社は 油價하락에도 불구하고 투자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상류부문에 관계하고 있는 다른 회사 이상으로 투자예산의 작년수준유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룹의 소우퍼상무이사에 의하면, 금융을 받아서라도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석유 및 가스 가격이 조만간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며, 특히 北海에서 생산코스트 절감가능성이 그 이유라고 밝히었다. 따라서 셸社の 탐사예산도 보다 효율적인 탐사에 중점을 두고 작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상류부문의 사업으로는 英國에서 턴과 아이더 해상유전 개발이 진행중에 있다. 현재 둘다 계획단계로서 오는 89년에 모두 10만B/D의 出油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프랑스가 트롤·슬라이프너가스 계약을 체결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개발의 규모가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프랑스와의 계약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거대한 트롤田의 개발은 추진될 것이며, 다만 슬라이프너田의 개발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은 올해에 착수하여 89년에 구조물을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96년에 가스생산을 시작하여 최고 하루 22억입방피트의 생산을 기대하고 있다. 가스가격이 石油의 경질유가격에 비교적 밀접하게 관계되고 있는 네덜란드에서도 수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다. 그중에 F/3석유·가스개발과 아메란트島의 2단계 가스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 말레이시아에서 센트럴루코니아田 개발과 泰國에서의 탐사시추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하류부문사업으로는 美 휴스턴 근처에 기존시설의 1/5

크기만한 석탄액화처리시설을 추진중에 있다. 네덜란드에 있는 페르니스정유단지의 8억파운드에 달하는 고도화사업이 계속될 것이다. 단일규모로 최대의 프로젝트는 4억파운드가 소요되는 하이콘(수소화분해) 플랜트이다. 5년의 사업계획으로 계속되는 이 프로젝트는 88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 플랜트가 달성되면 超重質油의 精製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 이 프로젝트에는 2기의 탈황시설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美國에서는 텍사스 세리단에 천연가스플랜트가 올해초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英國에서는 스텐로우에 건설중인 유동접촉분해시설이 올해 완공될 예정이다. 프랑스의 베르레망에도 유동접촉분해시설 건설이 현재 기획단계에 있으며, 濠洲의 클라이드에 原油의 탈염시설 및 정제시설이 곧 완공될 예정이다.

■ 스테트오일

올해 스테트오일의 해상유전개발활동은 다소 저조할 것이 예상된다. 86년에는 해상시추를 위해서 5척의 시추선을 備船한 바 있으나, 올해에는 2척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86년동안에는 10 내지 15개의 시추장을 뚫었으나, 올해에는 6~8개정에 그칠 전망이다. 시추는 대부분 할덴반켄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보다 북쪽에 1개정 정도 계획되어 있다.

걸파크스석유프로젝트가 계속 추진될 것이다. 올해 1/4분기중에 A플렛포움에서 생산을 개시할 것으로 보이며, 이보다 앞서 3개의 해상시추정의 작업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A플렛포움의 생산량은 24만5천B/D로 추정하고 있다. B플렛포움은 오는 8월 현장으로 예인되어 88년 12월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90년에 약

49만B/D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C플렛포움의 건조작업이 계속될 것이다. 트롤/슬라이프너개발은 프랑스의 합의여하에 따라 전도가 불투명하다. 만일 프랑스가 계약에 서명하여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스테트오일은 93년초까지 가스생산을 위해서 유전개발에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협상이 실패하여 프로젝트의 규모가 축소되어 추진된다면, 협상실패의 댓가로 슬라이프너田의 개발은 다시한번 보류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기서 셸이 주조광회사가 되고, 스테트오일은 수송을 맡게 될 예정이다.

판매활동으로 스테트오일은 노르웨이産 가스의 구입가능성에 대하여 올해 英國과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하류부문의 사업으로 몽스태드석유터미널이 88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다. 터미널이 완공되면 스테트피리어드와 슬라이프너油田의 14일분의 생산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연간 정제능력 4백만톤에서 650만톤으로의 확장공사도 올해 완공될 예정이다.

■ 텍사코

올해 1월 1일부터 제임스W. 키니어 신임사장이 텍사코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그룹본부로부터 경영권의 이전 및 정제시설현대화계획의 추진 등 지난 3년간의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되지는 않는다. 키니어사장이 현재 텍사코의 조직비대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커다란 인원감축도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다만 120억달러의 손해배상요구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알려진 펜즈오일과의 소송결과에 모든 상황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피트룰리엄 타임즈, 86. 12>

말로하는 절약보다

한등끄는 손길먼저